

2026년 7월 26일

인도: 박현수 목사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신앙고백 ----- 다같이
사도신경
*찬양 ----- 다같이
• 주님의 뜻을 (찬425) / 이 죄인을 완전케(찬426)
•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참회의 기도 ----- 다같이
이사야 44:22
봉헌 ----- 다같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 ----- 최의순 장로
성경봉독 ----- 인도자
로마서 9:1-13
특별찬양 ----- 찬양대
그가 오신 이유
설교 ----- 박현수 목사
“왜 나입니까?”
*찬양 ----- 다같이
은혜
*결단의 기도 ----- 다같이
*축도 ----- 박현수 목사

*표는 일어서서
현금은 입구 현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Zelle 온라인현금: highland.giving@gmail.com)

P C A 하이랜드교회
한인중부노회

Highland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박현수 (Rev. Jason Hyunsoo Park, Pastor)

820 S. Milwaukee Ave. Vernon Hills, IL 60061 ☎(847) 634-6033
www.highlandchurch.com (web) highlandchurch1977@gmail.com (교회)
parkhyunsoo@hotmail.com (담임목사) hellofromhighland@emweb.com (EM Web)

◀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

둘째 아이의 학교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며칠 전 학교에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협박한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 그래서 학교는 이제 안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 기간이라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범인이 잡혔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의 이름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한인 청년이었기 때 문입니다. 정신 이상 증세가 있었는지 둘째 아이의 학교 뿐 아니라 ‘월로우크릭 교회’에도 테 러를 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무기가 발견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테러 를 저지를 생각도 능력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번 일로 재판에 넘겨져서 최대 3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한인이라고 생각하니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 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총기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와 가까운 하이랜드 파크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범인들이 인디애나 주에서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시 카고 지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미전역으로 하면 더 많은 총격 사건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톱하면 총을 쏘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박목-

◀ 광고 ▶

- 구역예배안내: 1구역(7/26, 12:45pm 교회), 2구역(7/26, 4pm 홍현만 집사택), 4구역(7/26, 3:45pm 교회)
- 금요 특별찬양예배: 7/31 7:30pm (문의: 최의순 장로)
- 중고등부 Roots 수련회: 7/27-7/30. 주제: Behold Your God.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Bloomington, IL.
- 협력기도: 김영자(김택문), 이맹표, 이오덕, 남궁운자, 김형곤(김순자씨)
- 다음주 기도: 김태종 장로 / 금요예배 기도: EM
- 이번 주 봉헌위원: 최현희 집사, 다음주 봉헌위원: 김준용 장로
- 친교: 이번주- 한문선 권사 / 다음주- 김승연 권사, 이정하 집사
- 7월 뒷정리: 2구역/ 8월 뒷정리: 3,4구역

◀ 모임안내 ▶

- 금요 찬양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토요 새벽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Youtube QT 방송: 매주 수요일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담임 목사 박현수
E.M 목사 정영준(Jonny)
교사 Chris Choi, Jemimah Chae
시무장로 최의순 김태종
성가지휘 강수경
반주 Adam Kastler
찬양팀 최의순 최의설 강수경

◀ 후원 선교사 ▶

케냐 - 강충만
말알 선교단 - 남성우
NOVO(NK) - 서예레미야
Pipeline Ministry - 심수영
REI - James Kang

*우리는 교인의 1%를 선교 보내는 1% 챌린지 교회입니다!